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
	보도	2017.10.19.(목) 조간	배포	2017.10.18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담 당 자	양재훈 사무관 (02-2100-2993) 김준 사무관 (02-2100-2994) 양병권 사무관 (02-2100-2992)		
	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 김수현(02-3145-7410)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(02-3145-7550)		김용실 부국장 (02-3145-7370) 이창운 팀장 (02-3145-7447) 이상민 팀장 (02-3145-7552)		

제 목 : 개정된 신탁법·저축은행법·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.19일 시행 -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

- ① 후불교통카드 검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(만19세→만18세)
- ② 우수 신탁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통한 신탁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
- ③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

1 추진경과

- 「금융분야 제재개혁」을 위한 신탁법, 저축은행법, 여전법 개정안이 '17.3.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(시행 '17.10.19일)
-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
 - 개정 시행령·감독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'17.10.19일 함께 시행

2 개정안 주요내용

1.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·감독규정

□ 우수 신탁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

-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(영업범위) 범위를 확대*

*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확대

		현행	개선
기본 공동유대 범위		주사무소 소재 시·군·구	좌동
	전부 확대 ¹⁾	-	인접하는 1개 시·군·구 (신설)
우수조합에 대한 공동유대 범위 확대	일부 확대 ²⁾	인접 시·군·구의 읍·면·동* * 3개 이하 동 또는 2개 이하 읍면(신탁 부재지역의 경우 5개 이하 동 또는 3개 이하 읍면)	좌동 (규정화)

- 1) (전부 확대기준) : 조합의 별금형(3년간) 및 경고 이상의 제재(1년간) 유무, 재무상태개선 조치 대상 여부(1년간), 순자본비율 4% 이상(2년말 연속), 자산 1천억원 이상, 예대율 60% 이상(2년말 연속), 조합원 대출 비율 80%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% 이상(2년말 연속)
- 2) (일부 확대기준) : 조합의 별금형(3년간) 및 경고 이상의 제재(1년간) 유무, 재무상태개선 조치 대상 여부(1년간), 순자본비율 2% 이상(2년말 연속), 고정이하여신비율 2.5% 이하(2년말 연속)

□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('18.4.19일 시행 예정)

-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(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인정)으로 규정
-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(상임감사 제외)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

□ 기타 개정사항

- (현행) 신탁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 보유 불가
→ (개선) 불가피한 사유*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예외적 허용

* ①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절차 ②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의한 관리절차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 등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

-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※ '17.10.10일자'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

2.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·감독규정

□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

-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, (시행령)
 - 차주 신용위험 평가, 차입금 규모·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함 (감독규정)
-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, (시행령)
 -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'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% 이상(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)'으로 규정 (감독규정)

□ 기타 개정사항

-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변경
 - * 부계-모계의 특수관계인 범위 일치(현행 모계가 부계에 비해 협소) 등
-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 - ※ '17.10.10일자'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

3.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
□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*의 발급 연령 하향

* 체크카드에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(30만원) 한도로 후불(신용)기능 탑재 가능

-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,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

□ 기타 개정사항

-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(2~3배 인상) 등 규정 정비
 - ※ '17.10.10일자'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

3 향후계획

-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,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,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

<금융 용어 설명>

- **신협 공동유대** :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영업범위 단위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지역조합은 시·군 또는 구의 읍·면·동,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, 단체조합은 종교단체, 시장상인단체, 사단법인, 직종단체 등이 있음
- **저축은행 특수관계인** : 본인과 배우자,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* 등에 활용되는 개념
 - * 예)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[저축은행법 제2조]
- **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** :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(30만원)를 부여한 카드(여전법 승 제6조의7)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음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